

韓 민족유산 '한글', 불교계가 지켜왔다

한글날 맞아 허영호 친필 <조선어기원론> 공개

범어사에서 출간했던 불교지성인 허영호(1900~1952) 前동국대학장의 친필원고 <조선어기원론>이 공개됐다. 허영호 선생의 유족 허영선 씨는 최근 금정중학교에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를 기증했다. <조선어기원론> 친필 원고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직후 한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활동한 불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자세히 적혀 있다. 허영호 전 학장은 서문을 통해 "과거 반세기 동안 조선어 연구자들이 일본 학정의 못매 밑에서 연구를 계속 해 온 결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바로잡게 되었다"며 "조선 민족이 가진 이 조선어라는 것은 조선 민족이



허영호 前 학장이 작성한 친필원고

1914년 당시 부산 범어사는 한글 역경화 사업을 위해 조선어 강습으로 한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총 24명의 한글교사 및 전문가가 배출됐으며 허영호 선생도 그 중 하나였다.

범어사 등 한글 보급 증진 총 6권, 어원 등 내용 담아 유족, 금정중에 기증 '눈길'

이후 범어사 조선어 강습 졸업생들은 불교 중요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허영호 선생은 <불교성전>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 그 외 많은 불서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가진 모든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화선 금정중 교사는 "당시 김법린, 선광 선사 등 뛰어난 분들이 졸업하고 한글 역경화 사업에 앞장섰다"며 "허영호 선생의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는 한글 보급과 전문연구에 범어사와 불교계가 앞장섰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친필 원고를 기증한 허영호 전 학장의 유족 허영선 씨는 "평생토록 소중히 보관해온 아버님의 친필원고를 이렇게 기증하게 된 것은 다행 아닌 아버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 재평가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된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는 총 6권으로 조선어의 어원, 어휘, 어원 등 한글의 기원을 연구 조사해 적은 글이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 비교하고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노덕현·하성미 기자

조계종 내년 예산심의 중회 열린다

중앙총회 제204차 정기회 11월 3일 개원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 등을 다룬 중앙총회 제204차 정기회가 오는 11월 3일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27일, 종책질되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 및 상임 분과위원장은 10월 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 6차 연석회의를 열고 204차 정기회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203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법제법을 비롯해 총림법,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종단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중무감사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점심을 배식했으며,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쪽방촌 도우미봉사회 격려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1000여 명의 쪽방촌 이웃이 함께한 가운데 '제15회 쪽방촌 주민위안잔치'도 열렸다. 본행사에서 풍물패 공연이 진행되고, 가수들의 노래와 주민들의 자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글=신성민 기자

'엄화미소법' 내년 3월까지 입안 추진

조계종 중앙총회 제도 특위, 7일 첫 회의서 결의

총무원장 선거 혁신 방안 논의 범등 스님 제안 중심으로 추진 11월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변화를 위해 제안된 '엄화미소법'이 내년 3월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격)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위는 지난 8월 前 호계위원장 범등 스님이 새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엄화미소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앙총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특위 위원들은 '엄화미소법'을 제안한 범등 스님을 비롯해 조격·자현·오심·지홍·주경·장명·함결·성행·법상(화림)·제정·정덕·혜법 스님 등 중앙총회의원, 정묵·덕문·경우 스님 등 교구부사 주지, 지현·일감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와 도진(직지사 중앙 감원)·도문(전 조계사 주지)·능도(전 기획실장) 등 종단 중진 스님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범등 스님이 제안한 '엄화미소법'을 토대로 마련하되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3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정기회 기간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임시 회까지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성문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곱 번 정도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런 가운데 범등 스님이 주창에 의한 선출제도를 제안했고, 선거 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범등 스님은 "조계종이 금권선거 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종단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엄화미소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엄화미소법'은 중앙총회의원과 각 교구부사 등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정스님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간 21주년 특집 | 혐오사회, 불교적 대안 B1~3 | 관계 사이 B4~5

법회없는 '어린이 전법도량' 포교원 부실 관리 도마 위

121곳 중 15곳 법회 없어... 포교원 "관리 어렵다"

본지 10월 3~6일 전화 조사 매주 법회 사찰 70% 못미쳐 법회 중단 3년 사찰도 유지

이법요집 등 자료 배포하는 한편, 매년 우수전법도량을 선정해 노트북, 피아노, 빔프로젝터 등을 지원해 왔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이하 어린이전법도량) 체계가 관리부실로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었다. 조사결과 어린이전법도량을 중단한지 3년 이상인 사찰 3곳이 전법도량 지정기간인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밝혀졌다.

본지는 10월 3~6일 어린이전법도량 121곳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어린이전법도량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찰이 15곳(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교원 측은 연말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전법도량 현황을 파악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화조사 결과 대부분의 일선 사찰에서는 보고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전법도량 법회를 월 4회 실시하는 사찰은 83곳(약 69%), 월 2회 8곳(약 6.6%), 월 1회 8곳(약 6.6%), 미실시 15곳(약 12.3%), 무응답 7곳(약 5.8%)이다. 월 4회 운영하는 사찰 중 5곳은 어린이·청소년법회가 아닌 부설 어린이집 등에서 원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요법회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 사찰에 제출을 권고해도 이행하지 않는 사찰이 있다. 관리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교원은 2009년부터 어린이전법도량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지정 사찰을 지정하고, 종단 차원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추진하는 전법도량 운영해왔다. 이후 포교원은 어린이전법도량중심도량에 108어린이마음거울CD, 어린이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은 "종단 어린이 포교 총력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또한 최미선 동원 사무처장은 "전법단과 전법도량, 불교스카우트 등으로 다양화된 조계종의 어린이 포교정책의 단점이 드러났다. 총회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관련기사 A7·8면>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경력기자	각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서류전형	필기시험
수습기자	0명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물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물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령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1370주년 개산대재

2015. 10. 17 ~ 10. 21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

청한 가을의 향기가 천년의 도량을 감싸 안을 듯 좋은 절기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 1370주년을 기리는 환희의 야단법석이 펼쳐집니다.

행사일정	시간
어린이수계식	10월 17일 11:00
재흥잔치	10월 17일 13:00
청소년연승경연대회	10월 17일 14:00~17:00
패불이문	10월 18일 10:00
패불헌공	10월 18일 10:30
다문화공연	10월 18일 13:00~15:00
통도사 학춤	10월 18일 15:00
어린이들을 위한 만발공양	10월 19일 12:00
패불탱 특별전	10월 20일 13:00
부도헌대례	10월 20일 14:00
개산조당 영고제	10월 21일 09:00
법요식 (장학금 수여, 지역문화 발전 공헌자 표창)	10월 21일 10:00

이번 개산문화대재 주간에 패불이문식을 화려하게 재현 할 예정이며 자장율사스님의 영고제를 통도사 본말사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릴 것입니다.
* 개산문화대재 주간에 진행 될 내용들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사배건은 10월 17일(토)~10월 21일(수)까지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 382-7182 Fax. (055) 382-7196 www.tongdosa.or.kr

입재 2015년 10월 17일(음 9.5)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대상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통도사 어린이 수계식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깨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울미년 어린이 수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부 동참하시어 세계생생의 불연으로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합니다.